

## 일본 노동조합의 실태

일본의 노동조합은 1975년을 피크로 노동투쟁 건수가 감소하는 대신 현재까지 자금력을 꾸준히 키워왔다. 여기서는 민주당 정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.

### □ 노동조합의 내실

#### ○ 조합원수

\* 일본의 최대 노조는 UI젠센동맹이며 986,414명의 조합원이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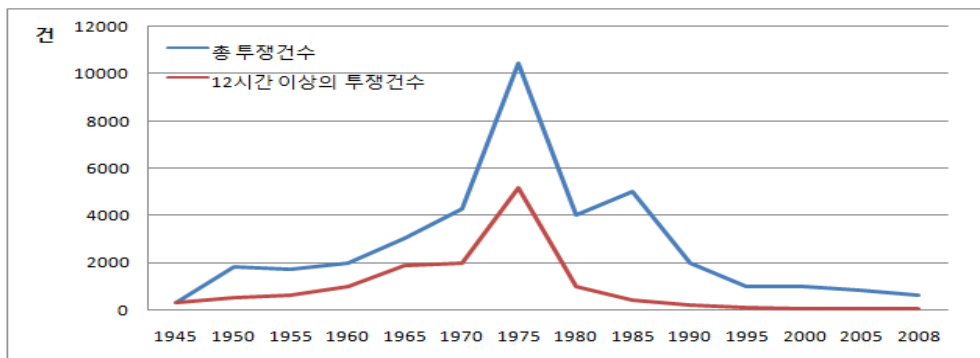
순위	약칭	정식 명칭	조합원수(명)
1	UI젠센동맹	전국 섬유화학식품유통서비스 일반노동조합동맹	986,414
2	자치노	전일본 자치단체 노동조합	887,174
3	자동차총연	전일본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총연합회	741,611
4	전건총연	전국 건설 노동조합총연합	687,171
5	전기연합	전일본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노동조합연합회	629,880
6	JAM	JAM	389,798
7	일교조	일본교직원조합	290,857
8	기간노연	일본기간산업 노동조합연합회	248,781
9	생보노연	전국 생명보험 노동조합연합회	241,967
10	정보노연	정보산업 노동조합연합회	222,258

\* 최근에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가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전체 조합원수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은 80%가 넘는 기업도 있음

업종	기업명	전체 조합원수(비정규직 비율)
유통	EION 리테일	80,600명 (80%)
	Sunday Sun	3,920명 (89%)
	오다큐백화점	2,088명 (40%)
제조	KENWOOD	113명 (80%)
	일본햄	3,160명 (45%)
	야자키산업	7,026명 (16%)
철도	히로시마전철	1,378명 (18%)

## ○ 조합비

- \* 1년에 1인당 약 6만엔의 조합비가 거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
- \*  $59,665\text{엔} \times 31,143\text{명} = 19\text{억}7,273\text{만엔}$  (일반회계 수입)
- \* 일본 노조는 1975년까지 노동투쟁을 빈번히 하고 있었으나 현재 최저 투쟁건수는 636건(그림 참조)까지 저하된 상태, 조합비는 고스란히 적립되어 여유자금으로 남게 됨 (2008년10월 현재 43억4,597만엔의 여유자금 존재)



## ○ 자금운영

- \* 일본 노조는 여유자금과 별도로 ‘노동금고’ 라는 노조 금융기관에 15조4,000억엔의 자금이 존재, 이 자금력은 지방은행보다 훨씬 큰 규모를 의미

순위	금융기관명	자금(조엔)
1	우편저축은행	177.4
2	미츠비시도쿄UFJ은행	100.2
3	미츠이스미토모은행	70.0
4	미즈호은행	56.2
5	농림중앙금고	42.7
6	미츠비시UFJ신탁은행	41.5
7	스미토모신탁은행	31.7
8	중앙미츠이트러스트홀딩스	26.2
9	미즈호신탁은행	25.6
10	신용금융중앙금고	23.5
11	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	21.0
12	리소나은행	19.8
13	리소나신탁은행	17.2
14	노동금고	15.4

### 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 (2009.12.05)